40년의 묵상 끝에

(출2:11~25)

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40년의 묵상 끝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40년의 묵상 끝에'

40년의 묵상 끝에 모세는 영판 바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고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한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모세가 회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중에 회의적인 자아의식을 드러내는 구절들만 읽어보면 3: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합니다.

40년 묵상 끝에 모세의 자아의식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4: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걱정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요즘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도록 선택하셔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계속 뒤로 뺍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적들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에게서는 이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4: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직전에, 4: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40년을 뭉뚱그려 버립니다.
이 40년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모세는 양을 치며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모세의 뭉뚱그린 중간기인 처가살이 40년의 비밀을 알아내야 하고,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바로 ‘40년의 묵상 끝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역사를 모른 척하고 앞부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 등의 주인공급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과제는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고 소통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소개되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특징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이 맺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상대해야 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도 합니다. 이제까지의 선조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죠.
이러한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첫 번째 40년과 두 번째 40년을 쓰신다는 것인데, 두 번째 40년 동안에 그러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선민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막에서 묵상을 시키셨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두고두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것입니다.

양들이 풀 먹을 때에 우두커니 앉아서 마음을 사로잡는 곱씹을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40년에서 묵상할 내용을 첫 번째 40년 동안에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는 광야생활 중에 모세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40년/40년/40년으로 딱 떨어지게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의 생활이고, 두 번째 40년은 처가살이고, 마지막 40년이 선민을 이끌어 낸 뒤의 광야생활입니다.
이 광야생활 중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쓰게 되고, 자신의 첫 번째 생애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딱 두 가지 사건만 기록하는데, 40년 중의 첫 번째 사건과 그 40년의 마지막 순간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두 번째 40년 동안에 처가살이 하면서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하며 묵상할 재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첫 번째 40년에 일어난 머리와 꼬리부분의 사건을 묵상하는 동안에 모세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려고 다 준비하셨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시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나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를 돋울 정도로 자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당사자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세가 40년 묵상을 통해 자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되고서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고,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통해 선민들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중계인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첫 번째 40년의 머리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나 지략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할진대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노예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아를 나일 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정책이 시행되는 중이고, 그런 가공할 학살정책을 선포한 왕의 딸이 핫셉수트 공주였는데, 그 공주가 나일 강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왕의 딸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40년의 마지막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바로가 모세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입니다. 모세의 양어머니인 핫셉수트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위 계승권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세웁니다만,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이 왕이 궁녀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고 죽습니다. 모세는 공주였다가 왕비가 된 핫셉수트를 양어머니로 모신 형편이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는 왕과 궁녀 사이에서 나은 아들로 모세와 형제인데, 실제로 왕은

모세의 형인 궁녀가 나은 아들이 되었지만, 실권은 모세의 양어머니인 핫셉수트가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예의 아들이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살로 죽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왕자로 영입되는 과정은 모세의 의식적인 참여가 제로인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의식이 생겼을 때에는 이미 자신은 왕자가 되었으니 순도 100%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의해서 40년 동안 바로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권을 잡고 있는 자기의 양어머니의 아들로서 자기 형제인 바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왕이 될 형편에까지 왔는데, 도중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애굽에 들어와서 왕자가 되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핫셉수트의 양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더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예의 아들들을 죽이는 정책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히브리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명백한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첫 40년의 머리에서 일어난 모세의 묵상의 절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첫 40년의 꼬리 부분의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된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족 의식을 갖게 되고,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 감독에 의해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변을 살핀 다음에 그를 죽입니다. 주변을 살핀 이유는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 사람을 도와 애굽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제국가였던 애굽에서 그게 무슨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면 큰일이 나겠으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다음에 죽였는데 그것이 히브리 동족에 의해서 폭로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인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상상과 모든 가능성을 넘어선 순도 100%의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 인해 이루어진 40년간의 애굽의 왕자 생활이, 단 한 순간의 단 한 번의 모세의 행위를 통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이끄심의 과정을 통해서 왕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실권을 가진 왕비의 양아들로서 차세대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게 쌓아올려진 성이 자신의 행동 한 번으로 무너집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교활하고 치사하게 속였던 것도 아니고, 민족애와 동족의식으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인데, 자기가 동질감을 느꼈던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그 일이 폭로당합니다. 덮어질 줄로만 알았는데 덮어지기는커녕 폭로되며 40년의 애굽의 왕자 생활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번째 40년 동안 묵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40년 동안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고통 받는 동족을 보면서 괴로웠을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40년의 왕자 생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이전의 사실이고, 그 사실이 노예 집안에 태어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순도 100%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순도 100%의 자신의 행동 하나에 의해서 40년의 역사가 한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40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머리와 꼬리만 기록한 것인데, 두 번째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순도 100% 하나님이 하신 일과, 순도 100% 자신의 행위를 묵상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로부터 나온 순도 100%의 행위를 통해서 40년 왕자 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파괴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40년간 곱씹고 곱씹으면서 깨닫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행동도 사실은 민족에 대한 충정과 동족의식과 민족애에서 출발한 열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기리는 영웅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곱 같이 교활하고 치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왕자로서 나 몰라라 해버리고 말아도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11:24-25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의 화려함에 묻혀 살기 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택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민족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자기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이 머리와 꼬리 부분의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소원은 단 한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해 버릴 수 있는 나로부터의 행동, 나로부터의 사랑, 나로부터 출발하는 민족애… 이런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40년 동안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로 자기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자발적으로 소통을 했지만, 모세는 소통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첫 40년 동안에 대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젖을 먹이던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과, 양어머니가 했던 말들과, 40년의 궁중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순도 100%의 하나님의 역사와, 순도 100% 자신의 행동 두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를 나로부터 나온 단 한 번의 행동이 무효로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120살 까지 되풀이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40년의 묵상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농축되어 담겨져 있고,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세의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과 열정과 민족애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애는 모든 인류가 자기나라의 국민들에게 기리는 덕목인데, 모세는 나로부터 나오는 민족애 자체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행동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 모두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모세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출애굽 같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아도 내용적으로 원리적으로 모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가장 무서워하는 자들이 잡는 것이고,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무서워하며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자식과 아내와 남편 앞에서, 사업과 과제와 직장 상사 앞에서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인이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단 한 번의 행동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갈 때에는 바로를 무서워했지만, 40년의 광야 묵상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와 소원과 계획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버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아들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단 하나의 행동이 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데, 나로부터 말을 하고, 나로부터 생각하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40년 동안의 모세의 묵상이 농축되어 있는 십자가를 오늘도 매 순간 붙잡고 생활함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무서운 것이 나의 행동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